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6. 6. 17.(수) 11:00
(지면) 2026. 6. 18.(목) 조간

배포 2026. 6. 17.(수) 06:00

전국 단위 해양수산 재난관리 협업 나서... 재난대응 관계기관 합동 연수회 개최

- 전국 4개 권역에서 소속·유관기관, 지방정부 등 70여 개 기관 참여

해양수산부(장관 황종우)는 6월 18일(목)부터 25일(목)까지 전국 4개 권역*에서 순차적으로 '해양수산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합동 연수회(워크숍)'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* 부산(6. 18.), 서울(6. 22.), 강릉(6. 23.), 광주(6. 25.)

해양수산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11종의 재난 유형*에 대한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,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매뉴얼 작성·운용, 재난대응 교육·훈련, 상황관리체계 구축·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.

* (주관유형 11종) 해양 선박사고, 대규모 해양오염, 적조, 조수, 해파리, 해수욕장, 수산물도매시장, 항만, 국가 핵심 기반 마비(교통수송항만 분야), 행정정보시스템, 청사 시설

이러한 재난관리 활동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선박사고, 대규모 해양오염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지방정부, 소속기관,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수회를 개최해 왔다.

이번 연수회에서는 ▲국가재난관리체계와 위기관리 매뉴얼, ▲선박사고·해양오염·해파리 출현 등 주요 재난 사례와 대응 요령, ▲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제도, ▲여름철 풍수해 대비 상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며, 총 70여 개 기관*에서 250여 명의 재난업무 담당자가 참여한다.

* 지방해양수산청, 광역·기초단위 지방정부, 항만공사, 수협, 해양환경공단 등

특히 올해는 인공지능(AI)을 활용한 미래의 재난대응체계 등 새로운 재난관리 동향을 공유하고, 재난안전 인문학 등 교양 강의를 통해 재난관리 업무의 가치와 의의를 되새길 예정이다.

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“재난은 초기 대응과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”라며, “이번 연수회를 통해 해양수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, 재난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	책임자	과 장	김인수 (051-773-5850)
		담당자	사 무 관	정소희 (051-773-5857)
		담당자	사 무 관	권현준 (051-773-5853)

